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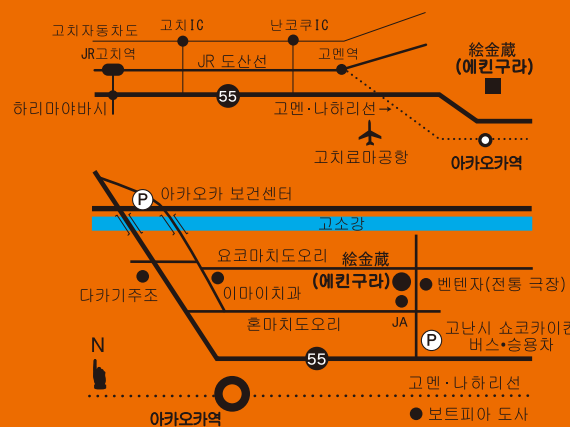
걸어서 둘러보면 재미가 두 배
인 아카오카



まち歩き
の楽しみ
付き
歩く町、
赤岡。



아카오카는 작은 마을이지만,
거대한 잔으로 호쾌하게 술을 단
숨에 마시는 「도로메(정어리의
치어) 축제」나 「에킨 축제」로 매년
관광객으로 북적대는 등 전국에 잘
알려져 있습니다. 이 주변에서 상업
이 가장 일찍 발달한 곳으로, 거리에
는 기와나 흙, 나무, 종이 등의 천연
소재로 만들어진 오래된 상점가(商
家)가 남아있습니다. 지금도 '맛은편
세 집, 좌우의 두 이웃집'(일본식 표
현)이 모두 가족처럼 살아가는 모습
이 남아 있어, “아직도 이렇게 따듯
한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구나.”라
며 아카오카의 팬이 되는 분들도 많
이 있으니, 여러분도 꼭 이 거리를
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.



【교통기관】

자동차 고치시 하리마야바시에서 약 30분
고치로마공항에서 약 10분
고치자동차도 난코쿠(南国) IC부터 30분
고치역에서 고멘·나하리선을 이용 약 30분
아카오카역에서 도보로 10분

【에킨구라】

개관시간 오전9시~오후5시(입장은 오후4시까지)
관람료 성인520엔(470엔), 고교생300엔(250엔),
초·중학생150엔(100엔)
※()안은 15명 이상의 단체요금.
휴관일 매주 월요일
(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화요일)
12월28일~31일, 1월1일~3일

*에킨구라의 전시작품에 대하여

에킨구라에서 보존되고 있는 연극풍속화는 모두 1
년에 한 번 여름제사 때 장식을 위하여 그렸던 것입니
다. 이 전통을 지키며 작품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
창고 안의 창을 통해 볼 수 있는 2쪽 병풍 이외는 다 복
제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.

【카페】영업시간 오전9시~오후5시

휴관일은 에킨구라와 같습니다.

전시실 1 【어둠과 에킨】
전시실 2 【창문으로 보는 그림】
전시실 3 【에킨 백가지 이야기】
영상출
수장고



恐ろしくて美しい

우편번호 781-5310
高知県香南市赤岡町538
전화·팩스 0887-57-7117
URL <http://www.ekingura.com>



에킨구라(미술관)

화가 킨조(통상 에킨으로 불림)
도사번의 가신(家臣)인 기리마가의
어용화가로서 그림을 그리던 가노파의
화가였던 에킨은, 위조사건에 휘말려
성시를 떠났습니다.

그 후 에킨은 숙모를 찾아 성 밖
아카오카초에 정주하며, 술창고를
화실삼아 그림을 그렸습니다. 「에킨구라」
에서는 아카오카초에 남아 있는, 23작품의
병풍그림을 수장·보존하고 있습니다.



絵金蔵
えきんぐら



고치현 아카오카초

전시실 ①
어둠과 에킨

암야에서 열리는 극채색으로 된,
연극풍속화의 세계

에킨이 극채색의 그림 물감과 압도적인 기세의
필체로 그린, 육척사방이나 되는 두 폭의 병풍그림.
흔들리는 촛불에 비친 수라(修羅)를 묘사한 연극풍속화
의 세계는, 마치 움직이는 듯한 박력으로, 보는 사람
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. 에킨의 병풍그림은 어둠 속에
서 그 압도적인 존재감과 이채로움을 한껏 발휘합니다.
에킨구라에서는 밤에 열리는 축제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
전시실을 어둡게 하여, 병풍그림의 매력을 더욱 느낄 수 있
도록 하였습니다. 아카오카 해안의 파도소리가 들려오는
것 같지 않습니까?



전시실 ②
창문으로 보는 그림

1년에 한 번, 문화를 지키기 위한 364일

아카오카에 남아 있는 23장의 병풍그림은 최근까지
아카오카초 안의 각 구에서 보관되었습니다.
그러나 1년에 한번이지만 여름축제 때, 오랜 세월동안 상점가
(商家) 앞에 놓여졌던 그림에 손상된 곳이 나타나기 시작했습
니다. 그래서 이 곳, 아카오카의 문화와 병풍그림을
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서, 작품을 보관하
기 위한 창고로써 지어진 곳이 바로「에킨
구라」입니다.
여러분께는 특별히 실물을 보여드리고자
벽에 작은 구멍을 내어, 그 창을 통해 그림을
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매년 두 작품을 정
기적으로 그림을 바꾸어 전시하고 있습니다.



구라노 아나
1110 1110

蔵の穴

전시실 ③
에킨 백가지 이야기

에킨 생애의 수수께끼를 풀어보는 자료실

비밀에 쌓인 에킨의 생애를 여러가지 에피소드와 함께
살펴 볼 수 있는 이 자료실은, 에도시대 말기인, 에킨이
십년에 걸친 유랑 끝에 이곳에 당도하여 술창고를 화실
삼아 지냈던 시절의 아카오카 거리를 재현하고 있
습니다.
속악하고 험란하다고 일컬어지는 극채색의 병풍
그림과는 전혀 다른 백묘화는 또다른 매력으로,
작품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살펴보다 보면, 술을 즐겨
마셨다는 6척장신 에킨이 떠오르는 듯 합니다.



위조 사건

◆그것은 어둠 속의 사건

贋作事件

건줄 데가 없는 미적 재능으로, 18세
부터 에도에서 가노파에게 그림을 배워,
21세에 도사번 가신(家臣) 가리마가의
여용화가가 된 하야시 도이(당시 에킨의
이름)는, 위조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.
고물상 나카무라야의 부탁으로 가노 단
유의 모사를 그린 에킨은, 그림을 위조
했다고 탄핵을 받아, 가노파에서 파문
당하고, 여용화가로서의 지위도 해임당
하는 등 전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.
이것은 에킨의 재능에 대한 질투인지,
음모인지 모든 것은 어둠 속의 사건으로
역사 저 편에 묻혀있습니다.

金蔵、美高、洞意、
敬載、徳固、観潤、
柳宗、友竹、友竹文、
崔七、崔翁

병풍그림은 현재 1년에 한 번,
아카오카초 스루다하치만구 신사의
제사 때, 그리고 여름 축제 저녁 무
렵에만 창고 속에서 깨어나 상점가
(商家)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.
원래 이 병풍그림은 거리의 지역
유지들이 스루다
하치만구 신사의
대제에 봉납하기

◆1년간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
에킨 축제 絵金祭り

위해 에킨에게 부탁한 것으로,
제례에 앞서 전야제가 행해지는
7월 14일에 상점가 앞에 펼칠
수 있게 된 것은 에도시대 말기
부터입니다. 또한 매년 7월의
셋째 주 주말에 개최되는 에킨
축제는 상점가의 발전을 도모하
기 위해 1977년부터 시작되었
습니다.



아카오카초 스루다하치만구의
신사 제사 7월 14일, 15일



에킨 축제 7월 셋째 주 주말